

- 주요 뉴스: 미국 9월 개인소비지출, 0.6% 예상치 부합. 근원물가는 30년래 최고
 - 미국 식품의약국(FDA), 화이자 백신의 5~11세 대상 긴급사용을 승인
 - 독일 3분기 성장률(전기비), 1.8% 증가에 그치며 예상치(2.2%) 하회
 - 3분기 일본 경제 수축 가능성에 따라 중의원 선거 이후 대규모 부양책 예상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조기 건축 우려에도 월말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 상승세 지속
주가 상승[+0.2%], 달러화 약세[0.9%], 금리 상승[-3bp]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에너지기업 실적 호조 등이 견인
 유로 Stoxx600 지수는 유로존 GDP의 예상치 부합 등으로 보합세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11월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지며 상승세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.1%, 0.3% 하락
 - 금리: 미국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하며 볼플레트닝 양상
 독일 10년물 수익률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세 불구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75.6원, -6.1원) 0.5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10/29일	10/28일	전일대비			10/29일	10/28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605	4,596.4	0.19%	국채 금리 10y	미국	1.55%	1.58%	-3bp
	유럽	475.51	475.16	0.07%		독일	-0.11%	-0.14%	3bp
	중국	3,547.3	3,518.4	0.82%	CDS 5y	한국	19bp	19bp	0bp
	일본	28,893	28,820	0.25%		중국	46bp	46bp	0bp
	한국	2,970.7	3,009.6	-1.29%	위험 지표	EMBI+	-	374	-
환율	달러지수	94.13	93.35	0.85%		VIX	16.26	16.53	-1.63%
	유로화	1.1558	1.1681	-1.05%		WTI유	83.57	82.81	0.92%
	엔화	113.95	113.58	-0.32%	원자재	구리	436.80	443.85	-1.59%
	위안화	6.4056	6.3918	-0.22%		금	1,783.4	1,798.9	-0.86%
	원화	1,168.6	1,169.7	0.09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- 미국 9월 개인소비지출, 0.6%(전월비)로 예상치 부합. 근원물가는 30년래 최고치
 - 상무부, 9월 미국 개인소득이 전월비 1.0% 감소되며 예상치(-0.3%)보다 큰 감소폭을 기록. 처분가능소득은 전월비 1.3% 감소
 - 개인소비지출은 전월비 0.6% 늘어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, 물가변동효과를 제외한 실질 PCE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0.3%를 기록
 -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늘어나며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월비 0.2%, 전년동월비 3.6% 상승하며 '91.5월 이후 최고치 기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- 미국 식품의약국(FDA), 화이자 백신의 5~11세 대상 긴급사용을 승인
 - FDA 자문기구인 백신·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(VRBPA)가 만장일치로 동연령대의 화이자 백신의 접종을 권고함에 따라 어린이 약 2,800만명이 접종대상으로 분류
 - 투약량은 어른의 3분의 1 수준을 3주간 두차례 접종할 계획. 다만 실제 접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의 접종 권고가 필요.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11.2일께 표결을 통해 결정을 내릴 예정
- 독일 3분기 성장률(전기비), 1.8% 증가에 그치며 예상치(2.2%) 하회
 - 경제 재개방 조치로 인하여 서비스 섹터가 반등하였으나, 공급망 차질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여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세 기록.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실질 소득이 위축되면서 4분기 민간소비에 타격 우려
- 3분기 일본 경제 수축 가능성에 따라 중의원 선거 이후 대규모 부양책 예상
 - 일본 경제가 여름동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,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1분기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(다이치생명, BNP, NLI 등)
 - 이에 10.31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, 기시다 총리가 수습조엔에 달하는 부양책을 마련할 전망

■ 중국 국채, FTSE 글로벌국채지수에 편입 시작

- 앞으로 3년간 순차적으로 편입될 예정이며 대략 \$1,300억의 패시브 자금이 중국 국채시장으로 유입 전망
- 인민은행,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과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경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방침

■ WHO 테워드로스 현 사무총장, 차기 수장 후보로 단독 추천받아 연임 유력

- 회원국으로부터 9.23일까지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 추천을 접수한 결과, 28개국이 추천서를 냈고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유일한 후보로 나타남
- WHO 규정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, 임기는 5년. 내년 5월 회원국 투표를 통해 차기 사무총장이 선출할 예정

■ Bill Ackman, 연준이 즉시(immediately) 테이퍼링 결정할 필요

-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하고, 조속한 시일내 금리인상도 단행할 필요

■ 중국 당국, 동절기 생활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조절에 나설 방침

-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인 채소 가격은 공급을 크게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고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따른 급등 여지도 차단할 계획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0/29일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9월 PCE 물가지수(전월비): 0.2%, 8월(0.3%), 예상치(0.2%)
- 유로존 3분기 GDP(전기비): 2.2%, 2분기(2.1%), 예상치(2.1%)
- 유로존 10월 CPI(전년비): 4.1%, 9월(3.4%), 예상치(3.7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0/30~11/1일 현지시각 기준)

- 중국 NBS 10월 제조업 PMI(30일), 일본 중의원 선거(31일)
- 한국 10월 수출입동향, Markit 제조업 PMI, 미국 ISM PMI(11.1일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053, E-mail jchwang@kcif.or.kr